

2023 년 1 월 7 일 “(아바드의 사람들 1) 삶을 가꾸고 지키는 길”(창 1:26-28; 2:15)

사람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인간의 성서적 조건 –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사람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창 1:26-27). 이 말은 당시 사상을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부족 국가들은 오직 왕만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도록 조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담고 살아가는 큰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이며, 주신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이며,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해에 대한 중요한 키가 됩니다.

[2] 삶의 성서적 조건 – 가꾸고 지키라

사람은 삶을 소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억해야 할 본분을 주십니다(창 1:28). 사람은 **생육 번성 충만**하여야 하는 본분이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충만하고, 인간 안에 심어 주신 주님의 진선미(진리)로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피조물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진선미가 드러나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피조계에 대한 다스림의 정신은 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스림의 일상적인 모습을 ‘말아서 돌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2:15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말아서 돌보게(가꾸고 지키게 - 개역개정) 하셨다”)

‘**두셨다**’는 말은 **안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안식’의 의미 속에는 쉼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는 대리 통치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 2:15 ‘가꾸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드’입니다. 일차적으로 아담은 땅을 가꾸는(경작하는) 소명을 받았습다(2:5 참고). 그리고 삶의 자리인 에덴을 구석구석 가꾸며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과 관계들을 잘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혼돈과 의미 없는(마치 창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관계들은 물론 자연 세계와 환경 등 피조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영역은 없습니다.

이 일을 아담(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는 어떤 태도로 삶을 가꾸고 지켜야 하는지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는 에덴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교활한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창조의 뜻과 목적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 속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 됨의 참 조건을 잃고, 가꾸고 지켜야 할 본분이 필요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는 정도로 전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볼 때, 그 분 안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진실로 가꾸고 지키며 살아낸 본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과 가꾸고 지키는 삶의 본분을 회복시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참 인간으로서 회복을 내 안에서도 이루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2. 삶에는 중요한 본분이 있습니다. 창 1:26-28의 말씀 안에서 내게 가장 깊이 다가온 삶의 본질적 측면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